수목식재 하자저감 방안 (아파트현장)

2026. 10






Ⅰ. 굴취작업



1. 굴취작업

1) 굴취시 잔뿌리 상태 및 분직경 높이 확인

2) 분크기 : 근원직경의 4배 확보, 높이는 분직경의 70%

3) 단근 시 가위·톱 사용하여 뿌리 손상 최소화(기계톱지양)

4) 절단 및 상처 부위는 톱신으로 소독

5) 굴삭기 바가지 접촉에 의한 뿌리·분 손상 주의

6) 세근 보호 및 분 파손 방지 철저

7) 휴면기 굴취 원칙으로 활착률 향상 및 하자 예방

Ⅰ. 굴취작업









2. 분뜨기 및 상하차 작업

1) 분뜨기 작업은 균형 있는 팔각형 형태 유지

2) 분 크기는 규격 이상 확보하여 세근 보호

3) 반생이 조임 철저 실시

- 운반 전 1차 조임, 현장 반입 후 추가 조임 실시

4) 기저귀 작업밀착 시공으로 토사 이탈 방지

5) 운반 및 상,하차 시 분 흔들림 최소화 및 바 고임목 설치 하여 뿌리분 눌림 방지

6) 분 쏟아짐 및 분 파손 발생 시 활착률 저하 및 하자율 급상승, 분 보호 및 결속 상태 최종 점검 후 식재 진행

Ⅰ. 굴취작업







1-1. 하자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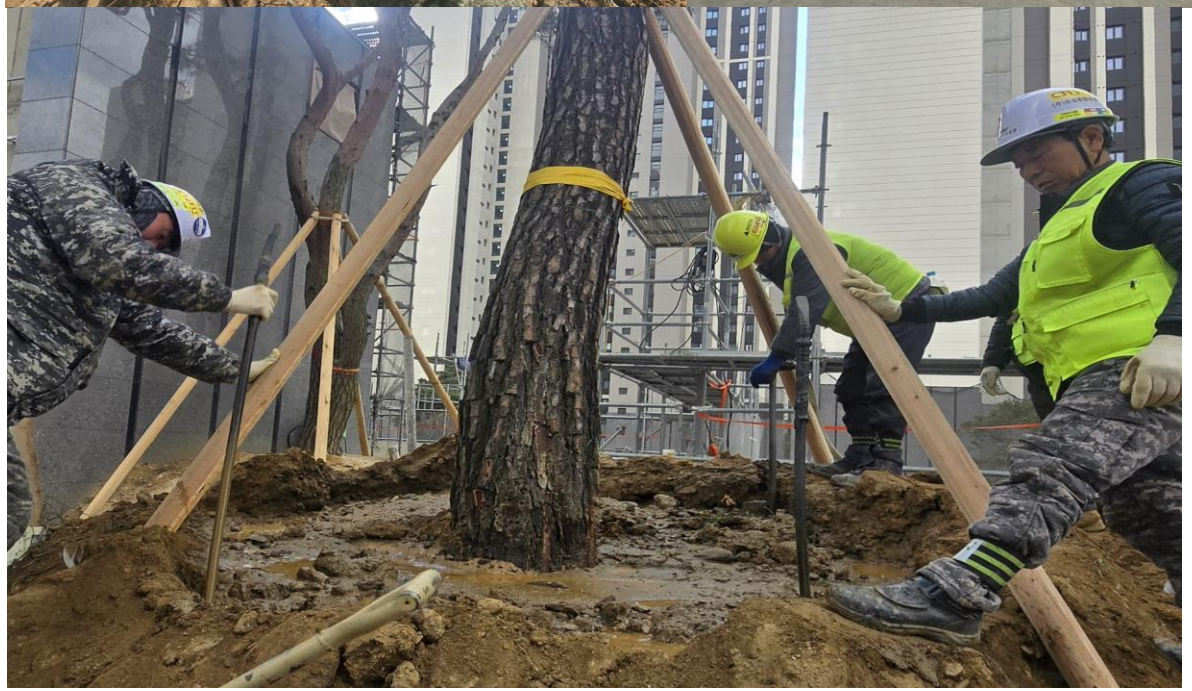
1) 다행송 R100 : 분크기,우죽잡기문제,이식시기 문제(1년)




Ⅱ. 식재 및 관수 작업







1. 우죽잡기

1) 상차지 관리자 입회 및 확인 실시

2) 수간 흔들림 및 품질 훼손 여부 점검

3) 운반 중 수형 변형 및 수피 손상 예방

2. 고가수목, 대형목 관리

1) 녹화마대 터주기 실시로 활착 용이성 확보

2) 기저귀 작업 및 결속 상태 철저 관리

3) 분 내부 통기 및 수분 공급 원활화

3. 관수 작업 관리

1) 지주목 설치 완료 후 관수 실시

2) 물죽쑤기 작업 충분히 깊게 시공

3) 뿌리와 흙의 밀착 확보

4) 공극 제거로 침하 및 활착 불량 예방

5) 1차 관수 후 재관수 실시

6) 식재 후 배수 상태 최종 확인 및 점검

Ⅲ. 전지 작업





1. 전지 작업 관리

1) 생육형 전지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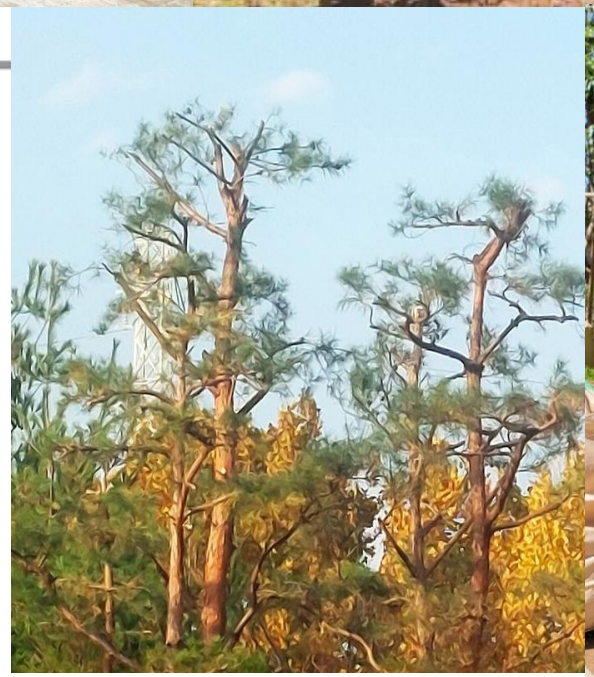
- 수세 회복 및 활착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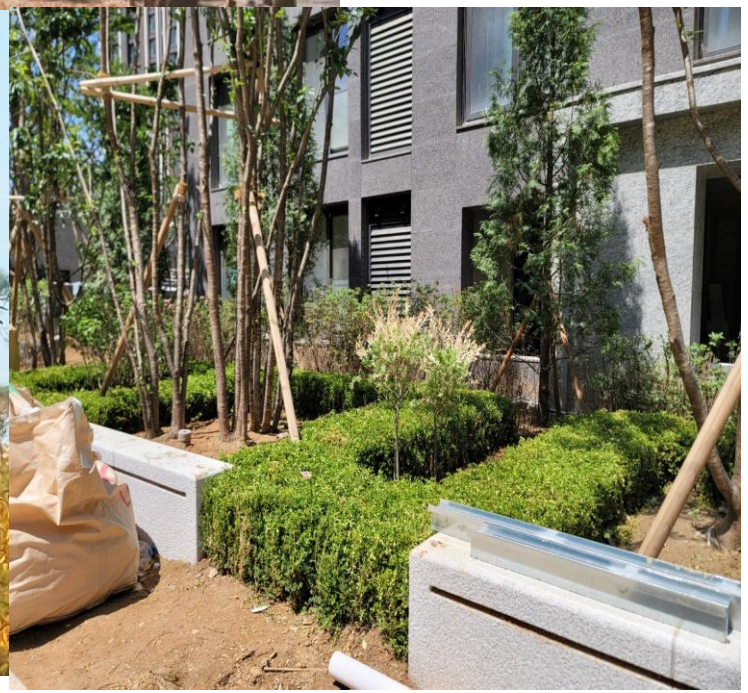
2) 수형 및 미관을 고려한 경관형 전지 - 비용과다

3) 지피융기선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전지 실시

4) 과도한 전지 작업 시 수세 쇠약 및 고사 위험 증가







2. 측백류 전지 관리

1) 자연스러운 수형 유지

- “하늘하늘한” 느낌 유지

2) 내부 마른잎 및 고사엽 완전 제거

3) 통풍 및 채광 확보로 병해 예방

4) 강전정 지양 및 수형 훼손 방지

Ⅲ. 전지 작업

* 투시형전지



1) 속가지 전정 - 바람길확보

2) 순서 속가지전정 -> 두목전정 실시 (웃자란가지,신엽가지)





Ⅳ. 배수 및 조경토 품질 확보

1. 배수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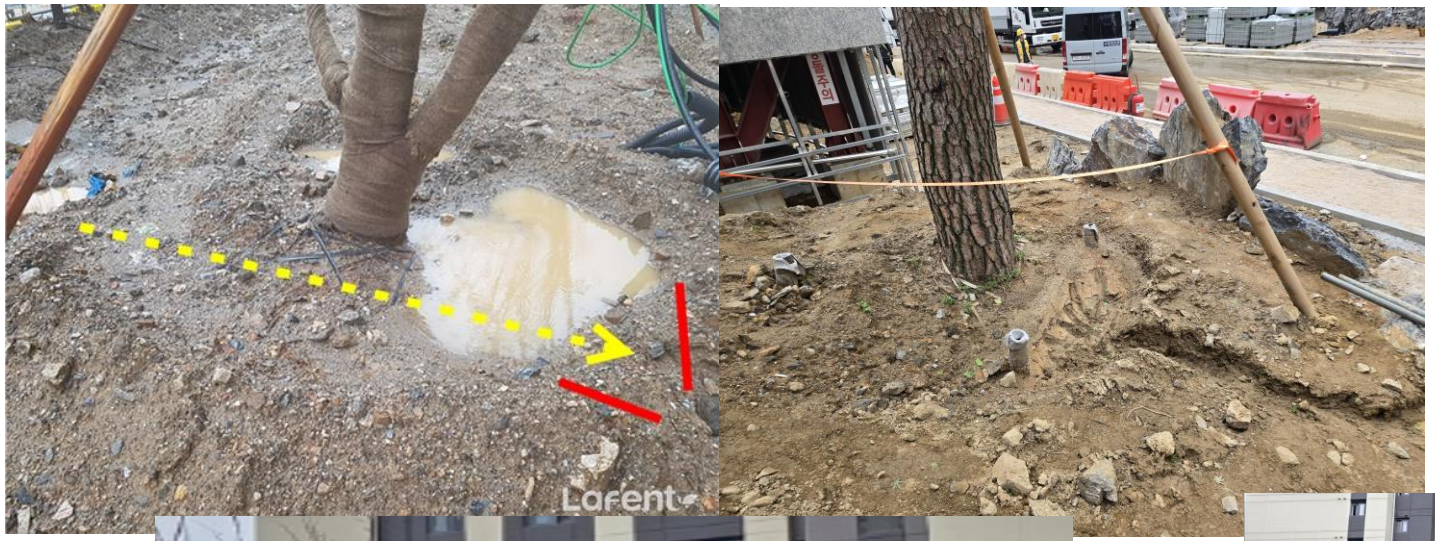
1) 우천 시 식재지 내 물 고임 발생 여부 수시 확인

2) 과도한 강우 시 임시 물배수로 형성 실시

3) 배수 불량 시 세근 녹아 뿌리 기능 상실

4) 식재 후 배수 상태 지속 점검 및 즉시 조치

5) 배수 확보로 뿌리 호흡 및 활착 안정화 유도





배수 안될 시 증상 예시 : 잎색 변화



과습시 위조피해(수분 과다 흡수)장애, 벚나무류

Ⅳ. 배수 및 조경토 품질 확보

조경토 예시 사진



알갱이질 마사(상급)



모래질 마사(하급)



폐기물 기름 섞인 마사(하급)

*부득이할 경우 배양토 및 양질의 마사로 치환 후 식재

Ⅴ. 기타사항

유지관리 및 활착 관리

1) 하절기 시공(7~8월)은 하자 다수발생

- **식재를 안할수록 유리하고 , 최대한 공사 최소화**
- **불가피할 시 강전지 실시, 반입즉시식재, 혹서대비 유지관리 시행, 새벽/ 저녁 시간 샤워실시 (평촌베르텍스)**

2) 병해충 관리

- **병충해 발생 비율 : 병 90%, 해충 10%**
- **병해 이후 충해 확률 증가, 예방 중심 관리 및 방제 작업이 가장 중요**

3) 현장 준공 전 유지관리 비중 70%, 준공 후 유지관리 비중 30%

4) 지속적인 관수, 배수, 병해충 관리가 활착률 및 하자 저감 핵심

수목하자저감을 위해서는

지속적인 관찰 / 즉시조치가

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!!

감사합니다!!